

朴·朴·朱·金, 文대표와 대립각... 金·禹·姜, 범친노 행보

<지철> <주선> <승용> <동철>

<성근> <윤근> <기정>

새정치 내분 소용돌이 속 광주·전남 중진 7명 엇갈린 스탠스

내년 총선 정치적 명운 걸려 신당론 두고 현격한 입장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 7명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당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지역 중진들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가운데 박지철,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비노·비주류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문재인 대표 등 당내 친노·주류 진영에 정치적 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박지철 의원은 당내 친노 진영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통합에 방침을 짚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신당 창당 등 야권 재편 여부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의 친노 정당으로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신당파로 분류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대표 퇴진이 최고의 혁신'이라며 친노 진영에 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대신 주자급들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초강경 대응 기조를 3개월째 유지하고 있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반면 김성근, 우윤근, 강기정 의원은 범친노 및 주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성근 의원은 중도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정세균 전 대표 진영의 범친노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대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 변경을 강행,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윤근 의원은 스스로 '친문'(친 문재인)임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일 당시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호남과 친노 진영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재의 당내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의원은 정세균 전 대표의 측근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친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최고위원 당선과 정책위의장 선임도 친노 진영의 지원과 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당 내외의 신당 및 분당 주장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열주의"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성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당내 상황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지역 중진들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하청 정치에 안주한 중진들은 친노, 비노 여부를 떠나 당 내외의 '물갈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 민심의 변화 욕구와 당내 혁신 공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중진들의 공천 탈락이 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내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호남 중진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중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하청 정치에 안주한 중진들은 친노, 비노 여부를 떠나 당 내외의 '물갈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 민심의 변화 욕구와 당내 혁신 공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중진들의 공천 탈락이 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내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호남 중진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중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하청 정치에 안주한 중진들은 친노, 비노 여부를 떠나 당 내외의 '물갈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 민심의 변화 욕구와 당내 혁신 공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중진들의 공천 탈락이 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내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호남 중진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중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하청 정치에 안주한 중진들은 친노, 비노 여부를 떠나 당 내외의 '물갈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 민심의 변화 욕구와 당내 혁신 공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중진들의 공천 탈락이 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내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호남 중진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중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하청 정치에 안주한 중진들은 친노, 비노 여부를 떠나 당 내외의 '물갈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 민심의 변화 욕구와 당내 혁신 공천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중진들의 공천 탈락이 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당내 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호남 중진이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 중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 땅끝마을 주민들 해남서 화합토론

해남 송지·포항 호미곶... 11~12일 국민대통합 행사

국토 서남쪽 끝인 해남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동서화합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땅끝 마을 주민과 국토 동쪽 끝인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2리 주민들은 11일 한자리에 모여 12일까지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사를 이어간다. 지난달에는 땅끝마을 주민들이 호미곶을 방문해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욱)가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사업'으로 이뤄졌다. 양쪽 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11일 첫날 행사에서

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와 양 지역 우호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또 기념식수와 함께 마을주민 주체 작은음악회, 국민통합 캠페인, 스피치 수거 봉사활동 등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광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시 호미곶면과 해남군 땅끝마을이 맺은 인연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양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협력을 당부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뒀다, 광주함

여섯번째 해군 호위함 경남 창원서 진수식

해군의 여섯 번째 차기호위함(FFG-2300급)인 '광주함' 진수식이 11일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에서 열렸다.

이날 진수식에는 함명으로 지정된 광주시의 운장현 광주시장과 부인 순화정 여사가 참석해 진수자로 나서 진수의식(진수도끼로 테이프 절단 및 볼 터트리기) 및 샴페인 브레이킹(샴페인 병을 선체에 깨뜨리기)을 진행한다.

해군은 이날 차기호위함은 현재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의 후속 전력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총 20여척이 건조된다고 밝혔다. 광주함은 3차원 탐색 레이더, 대함·대공미사일, 소나(음탐기)와 어뢰음향대항체계를 탑재했고, 해상작전헬기를 운영할 수 있다. 최대속력 30노트(55 km/h)에 12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해군은 차기호위함의 함명을 특별·광역시와 도,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의원정수 늘리더라도 농어촌 대표성 보완 해야”

국회서 선거구획정 공청회... 비례대표 확대 놓고 논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한편 사표 방지 등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도농 간 인구편차

와 각 분야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득한다면 국민에게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 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은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비례제 강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민의 널리 퍼진 정치불신을 감안할 때 의원정수 확대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한국의 정

치발전과 연계돼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정치권·학계·시민단체·언론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을 일마디 설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지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소 35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회의원 정수 논의와는 별개로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유의미한 것은 비례

의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구의 석 비중이 비례의석보다 지나치게 높아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불비례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역시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의 규모 확대 또는 현행유지 공히 지역주의 문제 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의 조정은 현행의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동의만 존재한다면 추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시간 :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